



KIA는 첫 4300도루를 앞둔 리그를 대표하는 대도의 팀이지만, 올 시즌은 도루보다는 화력으로 승부를 하고 있다. 사진은 버나디나가 지난달 30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 도루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무리해서 흠치지 않는다



**KIA 팀 첫 4300도루 ‘-4’
올 시즌 41차례 ‘전체 9위’
득보다 실 많은 도루 보다
화력·재치있는 주루면 충분**

팀 최초 4300도루를 앞둔 도루 9위, KIA 타이거즈다.

KIA 타이거즈는 전반기까지 통산 4296개의 도루를 누적하면서 첫 4300도루 팀 타이틀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많은 타격 기록의 1위 자리를 삼선 라이온즈가 차지하고 있지만 도루 기록은 ‘호랑이 군단’이 선두 자리를 놓지 않고 있다.

김일권·이순철·이종범 등 대표적인 대도들이 활약했던 타이거즈는 도루의 팀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타이거즈 이름으로 거머쥔 ‘도루왕’ 트로피는 모두 13개다. 김일권(1982·1983·1984), 서정환(1986), 이순철(1991·1992), 이종범(1994·1996·1997·2003), 김중국(2002), 이용규(2012)가 대도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종범은 1994년 84도루라는 깨기 힘든 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010년 각각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고 ‘도루왕’ 경쟁을 했던 이대형과 김주찬도 FA를 통해 타이거즈로 이적, 도루 기록을 보태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 4300도루를 채우게 되는 올 시즌 KIA는 도루 9위 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7월 17일 현재 도루왕 3연패에 도전하는 박해민을 앞세운 삼성이 62개로 가장 많은 도루를 수집했고, KIA는 41차례 베이스를 훔치는 데 그치며 ‘흠린 군단’ SK(30개)에 이어 뒤에서 2등이다.

이 추세라면 지난 시즌 101개(5위)에도 한참 부족한 기록이 남을 전망이다.

스피드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1번 이명기부터 시작으로 2번 김주찬 3번 버나디나 5번 안치홍, 9번 김선빈 등은 대표적인 호타 준수이다. 신종길, 김호영, 최원준 등 역시

있다. 선동열 감독 시절 야수진 전원에게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린라이트가 부여된 적이 있다. 올 시즌에는 버나디나만 그린라이트를 가지고 ‘20(홈런)-20(도루)’에 도전하고 있다.

부상에 따른 효율성 측면 그리고 무리해서 뛰지 않아도 확실하게 득점이 쌓이고 있는 화력 덕분에 도루가 강조되지 않고 있다.

KIA는 결정적인 순간 도루로 속을 태운 경험이 있다. 지난 시즌 중반 공격에 새바람을 넣어주던 노수광이 도루를 하다 왼약지가 골절됐고, 2017 시범경기에서는

안치홍이 도루를 하다 옆구리를 다치면서 개막 엔트리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도루로 얻는 이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에 따라서 도루를 전략적 무기로 삼지 않고 있다. 여기에 폭발적인 화력이 이어지면서 도루를 빼고도 막강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 루’를 강조하는 김기태 감독의 의중도 선수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도루 대신 재치있는 주루로 최대한 진루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도루가 KIA의 약점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어찌 됐든 ‘도루 9위’ KIA는 4300도루를 기록한 첫 팀으로 이름을 남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캠스필드 핫 서머 페스티벌

25일부터 물놀이장 개장
일반석 학생 할인 행사 등

캠피언스필드에서 시원한 여름 축제가 펼쳐진다.

국내 최초로 야구장 물놀이 축제를 열었던 KIA 타이거즈가 휴가철을 맞아 25일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는 등 ‘2017 금호타이어 핫 서머 페스티벌’을 연다.

금호타이어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5~27일 SK전을 시작으로 8월 12~13일 LG전까지 10경기 동안 계속된다.

KIA와 금호타이어는 캠피언스 필드 좌측 외야 샌드파크에 미니 수영장과 물 미끄럼틀을 설치한다. 미니 수영장은 가로 12m·세로 6m 규모이며, 물 미끄럼틀은 높이 4m·길이 8m 크기다.

물놀이장은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운영되며, 어린이(유치원생~초등학생) 팬만 이용할 수 있다.

‘20명-20분-1회’ 방식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주변에는 탈의실과 구조 요원 자격증을 가진 진행요원이 배치된다.



25~26일에는 중앙출입구 앞에 기아자동차 스티어링과 스톤이 전시되며, 금호타이어 전속 레이싱 모델과 함께 하는 포토 이벤트가 마련된다.

또 핫 서머 페스티벌 기간 동안 챔피언석과 테이블석을 제외한 모든 일반 좌석

에 대해 중고생 및 대학생에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입장료 할인은 현장 판매 시에만 적용되며, 매표 창구에서 학생증을 제시하면 중고생은 2000원, 대학생은 3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패 광주FC, 전북전 연습 도전



K리그 클래식 22R 원정

하고 상승세를 잊지 못하면서 상주 상무와 울산 현대에 연패를 기록했다.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골 결정력에서 밀렸다.

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전력 손실도 발생했다. 공격의 새로운 활로가 되어주었던 안필손이 20라운드 상주전에서 비디오 판독 절차도 없이 레드 카드를 받았다. 이에 따라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또 이 경기에서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이 움직이느라 선수들의 체력 소비도 컸다.

연패에 빠진 광주 FC가 힘겨운 원정길에 나선다.

광주는 19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2017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위기 속에 험난한 적지로 간다. 광주는 지난 19라운드에서 FC 서울을 3-2로 제압

21라운드 울산전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안필손의 공백에 조주영과 김시우를 투입했지만 큰 효과가 나지 않았다.

실상가상 심판 판정에 항의하던 남기일 감독까지 퇴장당하면서 전북전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됐다.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강팀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광주는 지난 4월 30일 장단 처음으로 전북을 꺾었던 기억을 살리려고 한다.

광주는 전북과 앞선 맞대결에서 전반 종료 직전 터진 여병훈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트로 1-0 승리를 거뒀다. 경기가 7장이 나왔을 정도로 치열한 경기 속에서 광주는 완벽하게 전북을 봉쇄해 승리를 신고했다.

리그 선두 전북은 지난 21라운드 상주 원정경기에서 3-1 승리로 승리하며 상승

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도 약점이 있다. 최근 상대의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역습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왔던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난 울산전에서 데뷔전을 치른 ‘북아일랜드 특급’ 나일얼 맥킨이 믿을 구석이 다. 맥킨은 앞선 울산 원정에서 후반 22분 교체 투입돼 29분을 소화했다.

우로 2016과 스코틀랜드 리그 등 큰 무대를 경험한 선수답게 빠른 패스와 상대 수비 틈을 파고드는 영리한 움직임 등을 선보이며 기대감을 높였다.

남기일 감독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걱정하지 않는다. 선수들과의 호흡만 맞추면 전북전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혜진 프로 전향 앞두고 몸값 폭등 조짐

US여자오픈 준우승에 스타성도 인정 받아

‘최혜진을 잡아라’

한국 여자 골프의 미래를 짊어질 새별 최혜진(17·학산여고 3년)은 오는 9월께 프로 전향을 계획하고 있다.

프로 전향을 앞두고 최혜진의 몸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오픈 우승과 US여자오픈 준우승으로 기량과 스타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골프 관련 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최혜진을 주목해왔다. 하지만 아직 아마추어 신분인 데다 내년 프로 무대 진입 여부가 불투명했기에 관망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오픈 우승으로 내년 KLPGA투어 입성이 확실해지자 입질이 시작됐고 US여자오픈 준우승으로 관심은 더 달아올랐다.

골프 매니지먼트 업계 관계자는 “용평리조트오픈 우승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최혜진 잡기 경쟁에 불이 붙었고 US여자오픈 준우승으로 경쟁이 더 뜨거워졌다”고 귀띔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금융기업 여러 곳이 최혜진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혜진의 모자 정면과 가슴 등 가장 노출이 많은 부분에 로고를 붙이는 타이틀 스폰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골프 의류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특급 선수는 타이틀 스폰서 못지않게 의류도 광고 효과가 높다.

최혜진은 타이틀 스폰서와 의류 계약을 프로 전향 이전에 마무리 지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프로 데뷔전에는 타이틀 스폰서 로고를 달고 출전하겠다는 복안이다.

클럽은 당분간 지금 쓰는 제품을 유지할 생각이다. 특급 선수는 클럽 사용도 돈이 오간다. 하지만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년 본격적인 프로 데뷔를 앞두고 겨울 훈련 기간에 여러 가지 제품을 충분히 테스트해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편 18일 귀국한 최혜진은 국가대표 반납 등 프로 전향 수순에 들어간다. 다음 달 18일부터 열리는 보그너 MBN 여자오픈이 아마추어 신분으로 출전하는 마지막 대회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세계랭킹 1천위권 밖으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1·미국)가 견장을 수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우즈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1005위를 기록해,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10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주 982위보다 23계단 하락한 것으로, 매우 개인 역대 최저 랭킹을 갱신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683주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지켰던 우즈는 지난 2014년 허리 수술 이후 좀처럼 재기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17개월 만에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 복귀전을 치른 파머스인슈어런스오픈에서 컷 탈락했고, 이어 2월에는 유럽프로골프 투어 오메가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서 1라운드 후 기권했다.

이후 4월에 허리 수술을 받은 우즈는 지난 5월 말 미국 플로리다 주 자택 인근에서 악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USA투데이는 “바닥을 치는 과정은 완전히 완료된 것 같다. 문제는 그가 복귀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

박성현 ‘한국 텃밭’서 2주연속 우승 도전

21일 LPGA 마라톤클래식

US여자오픈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 물꼬를 튼 슈퍼투키 박성현(24)이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우승의 감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비행기에 오른 박성현은 1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바니아로 향했다.

박성현은 21일부터 나흘 동안 실바니아 하일랜드 미도우스 골프장(파71)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마라톤클래식에 출전한다.

마라톤클래식은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의 텃밭이다.

1998년부터 작년까지 18차례 대회에서 10차례 한국 선수가 우승했다. 무려 5차례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박세리(40)를 비롯해 김미현(41), 최나연(30), 유소연(27), 최운정(27)이 한 차례씩 우승했다.

2015년 최운정은 LPGA 투어 데뷔 이후 157경기 만에 우승을 신고하는 감격을 누리 화제가 됐다.

LPGA 투어 최고 수준의 장타력에 격정하던 쇼트게임과 퍼팅에 확실한 자신감을 얻은 박성현은 이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우승 후보로 등장했다.

작년과 재작년 우승 스코어가 14언더파가 최근 5년간 최악일 만큼 난도가 높지 않아 박성현의 버디 쇼가 기대된다.

/연합뉴스

